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분석 연구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현 숙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분석 연구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현 숙

인 준 서

김현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음악과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수업의 실제 운영 형태 및 음악관련 활동 등을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인가받은 21개의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13개 학교의 음악교사이며,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안학교 음악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마다 음악교육을 위한 제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둘째, 대안학교의 음악과 교육내용은 주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다양한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대안학교의 음악수업은 주로 실기위주의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체험위주의 학습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특징을 반영한다.

넷째, 수업 시 사용되는 교재는 수업 내용에 따라 검인정 교과서와 직접 제작한 인쇄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교구나 활동에 관한 자료 수집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안학교의 음악과 평가는 실기평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평가로 다각적인 학생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여섯째, 대안학교의 음악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을 도우미 또는 안내자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일곱째, 대안학교의 음악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적은 자기표현과 창의력 계발, 음악을 통한 문화의 이해 등이 있다.

여덟째, 대안학교의 음악교과 사이버 공간의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활동면에서도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다.

아홉째, 대안학교에서의 음악교과는 전인교육을 위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다양한 내용의 음악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열째, 대안학교의 음악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교원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기 개발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위주의 학습, 공동체 중시, 아동중심의 학습관 등의 대안교육 특징이 음악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둘째, 매우 다양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음악이 끝이 아닌 음악을 통한 변화를 꾀한다.

대안학교의 다양한 시도가 일반학교의 음악교육에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은 일반학교의 음악교육에 있어 새롭고 도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아가 음악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표 목 차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4.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	7
2. 특성화고등학교	16
3.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를 위한 선행연구	25

Ⅲ. 대안학교 음악교육 현황과 실태조사	26
1. 연구방법 및 절차	26
2. 설문지 분석	28
3. 결과 요약	51
Ⅳ. 결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1>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19
<표-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요약	21
<표-3>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과 시간 배정표	23
<표-4> 설문조사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내용	26
<표-5> 설문대상 분석	28
<표-6> 음악실 유무	30
<표-7> 악기 보유 현황	31
<표-8> 수업 실시 장소	31
<표-9> 악기 활용빈도	32
<표-10> 기자재 활용 실태	33
<표-11>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업형태	34
<표-12>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교육내용	35
<표-13>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영역	36
<표-14> 교육내용 선정 방법	37
<표-15>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	38
<표-16> 교구나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39
<표-17> 수업의 최종목적	40
<표-18> 교사의 역할	41
<표-19> 평가 방법	42

<표-20> 음악교과를 위한 사이버 공간 유무.....	43
<표-21> 사이버 공간 활용도	43
<표-22> 대안학교에서 음악교과의 중요성	44
<표-23> 대안학교 음악교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45
<표-24> 음악관련 수업을 위한 전문 강사 유무	46
<표-25> 전문 강사 수	47
<표-26> 음악관련 활동	48
<표-27> 최근 5년간 교원연수나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4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의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변화를 전망하고, 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한국인을 육성함에 있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1세기, 새 시대는 새로운 변화와 급격한 변혁을 끊임없이 몰아오고 있으며 사회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급변하는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며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에 발맞추어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간상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유연성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다양한 인간의 특성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인간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학교교육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시민혁명은 근대 학교교육의 정치적, 사회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산업혁명은 경제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학교교육은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면서 그 위세를 넓혀갔고, 사회통합과 노동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이 확인되면서 국가와 자본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국가 발전의 필연적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대규모 교육인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대한 관료체제가 구축·운영되었다.¹⁾

지난 2세기 동안 학교교육은 이러한 경로를 따라 확대되었고, 서구에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다수의 인원을 표준화한 내용과 과정을 통하여 훈련시

1) 이종태, “학교 교육의 위기와 원인, 그리고 대안의 모색”

「교육이론과 실천, Vol.11 No.1」,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p.8~9

켜내는 학교교육의 방식은 대량생산체제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공급에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의 이러한 관계는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과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른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이제는 표준화된 다수의 인력이 아니라 특화된 개성과 능력의 소유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지만 변화에 둔감한 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 학교를 유지하는 원리들을 완고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대와 정보, 문화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언론매체가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숨어있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현상, 대학입시가 전부가 되어버린 교육 현실, 사교육의 팽배, 점점 증가하는 조기유학,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 등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학교현장의 심각한 상황들이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변화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다양한 대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안학교’는 이런 대안들 중 하나로 ‘학교현장의 의미 있고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교육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학교 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아울러 이 시기에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개혁정책과 결부되어 지금은 특성화 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의 제도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²⁾

2) 이병환, “국내의 대안학교의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Vol.12 No.2」, (한국열린교육학회, 2004) p.32

‘엄격하고 통제된 분위기’,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방식’, ‘비인간화된 학교제도’ 등으로 지적되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러한 학교들은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학생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추구한다. 대안학교의 추구하는 바를 음악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악은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다양한 사회와 사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³⁾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생활과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감성과 지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고 각 사람의 개성을 인정하며,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목적을 두는 대안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대안학교의 음악교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반학교의 음악교육에도 새롭고 도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대안학교 중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과정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음악과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수업의 실제 운영 형태 및 음악관련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현재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시설은 어떠한가?

둘째, 대안학교의 음악교과 수업의 실제는 어떠한가?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음악」,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p.19

셋째, 음악교과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넷째, 대안학교 교사의 교과 관련 재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이를 종합하여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대안학교의 다양한 유형 중 정부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설립된 대안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모든 대안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제도권 안에 있는 대안교육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만을 선택함으로써 연구대상의 제한을 두었다. 연구대상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수(21개)가 특성화 중학교(7개)보다 많아 연구대상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이다.

둘째, 수많은 대안학교 중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인가받은 학교가 21곳뿐이고 모두 개교한 지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로 모든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을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직접적 접근에 의한 질적 연구가 제한되어 설문지 분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현실감 있고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국내 대안학교의 교육관련 연구 중 음악교육 분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간접적 자료의 의존도가 높다.

다섯째, 대안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 일반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에 관한 논문을 비교자료로 사용하였다. 비교자료로 사용된 논문은 2005년 박상미의 석사학위논문으로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인문계 고등학교 중심으로”이다.

4. 용어의 정의

1) 일반학교

이 연구에서 일반학교는 대안학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공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학교를 지칭한다.

2) 대안학교

대안학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육학자들이나 대안교육 실천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적 필요와 국민적 요구에 의해 1995년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의 3>⁴⁾에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안학교가 정규학교 부적응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의 의미가 강하므로 당초 그려왔던 대안학교의 개념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대안학교를 정규학교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가 명료한 개념적인 경계를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논의과정에 입각하면 대안학교는

4) 「초·중등 교육법」 제 60조의 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교육의 한계에 대한 대안모색을 목표로 나름대로의 교육적 이념과 이상을 실천하고 운영하며, 학교라는 제도유형을 따르면서 대안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 연구에서는 ‘대안학교’란 종래의 획일화된 학교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1998년부터 법적으로 인정된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

현행 초·중등교육법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인가받은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애니메이션, 디자인, 요리 등과 같은 직업 분야 특성화학교가 있고, 인성교육 분야 특성화학교가 있다.⁶⁾ 대안학교로 알려진 특성화학교는 보통 후자를 가리키므로 이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분야 특성화학교를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학교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5) 이병환(2004), 전개서 p.33

6) 현병호, 「대안학교 길라잡이」, (서울: 민들레, 2005) p.31

Ⅱ. 이론적 배경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관한 각종 서적과 자료, 학회의 학회지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대안학교 홈페이지 등 참고문헌을 통해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의 의미와 역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

1) 대안교육의 의미

‘대안교육’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사용은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미국에서는 기존의 학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험학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자유학교’ 또는 ‘대안학교’라고 불렀다. 한국에서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1995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안학교의 성격과 유사하게 제도권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으며, 그 실천사례들이 소개 되면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에 익숙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안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안교육’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 논란도 있다. ‘대안(alternative)’이란 용어 대신에 ‘새로운’이 더 좋다는 주장도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말이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처음에는 ‘대안적’인 것일지라도 일단 보편화된 다음에는 그것 역시 ‘전통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 차별성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⁷⁾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

7) 강태중 외, “새 학교’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방안 탐색”,

의 본래 의미나 성격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교육’은 개념적인 표현이기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실재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대안(代案)’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안을 대신하는 안’⁸⁾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따라서 ‘대안’이라는 말에는 복수의 개념이 들어 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한 대안이기에 ‘수단’의 의미와 ‘비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복수, 수단, 비교의 의미를 지닌 대안이라는 말 속에는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이념,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는 여러 방안들 중에 문제의 성격이나 상황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확정되어 있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동태적인 의미를 갖는다.⁹⁾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나름의 개념 정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부터 기존의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성을 논의 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실천을 모색하는 학교가 태동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볼 때 정유성¹⁰⁾은 ‘기존의 제도 교육에서 규정한 학교의 형태와 내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이념에 따라 새롭고 다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라고 설명한다. 제도에 비켜서 있다고 제도 곁에 들어오는 고전적 대안 학교보다는 제도 밖에서 새로운 교육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험학교 운동이 더 대안적이며 여기서 대안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이상향을 품은 교육의 새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자체까지 기존의 것과 다른 방식을 꾀하는 학교¹¹⁾로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6-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p.10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1999)

9) 이종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2001) p.20~27

10) 정유성 외,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 양성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개발 연구 보고서, (1999) p.12

11) 정유성, 「대안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p.143

이와는 다르게 이종태¹²⁾는 생태적인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학교교육에 비해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대안교육은 대안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면서 기존의 학교가 현재의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안학교는 변화된 사회, 지금처럼 경쟁적이고 자연 파괴적인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¹³⁾는 제도적이며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대안학교란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도록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특수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들을 제공하는 학교로 보고 있으며, 교육법에서는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하여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법을 추구하는 학교로 정의한다.

강대중¹⁴⁾은 대안교육을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일부 학부모와 교사, 교육 운동가를 중심으로 민간부분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실천으로 보고, 대안학교는 이러한 실천이 학교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내리면서 민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현병호¹⁵⁾는 형식적인 측면보다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여 대안교육이란 단순히 교육의 방식이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삶=교육이다' 즉, 삶을 준비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 곧 교육이 되는 교육,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대안교육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12) 이종태(2001), 전계서 p.27

13) 광병선, "대안적 학교교육이란", 「교육개발」 통권 94호, (서울: 한국교원개발원, 1995) p30~33

14)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서울: 박영률, 2002) p.19

15) 강대중(2002), 전계서 p.18 - 현병호(2000) 재인용

주지만 공통적으로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새로운 교육의 추구를 담고 있다. 대안교육은 기존의 공교육체제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인간됨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계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대안적인 사고와 교수법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대안적인 교육방법을 실시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써 결국 대안교육에 대한 노력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욕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중심교육을 표방하는 현재의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2)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대안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근대 공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70년대 이후의 일이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공교육에 대한 비판에 사상적 근원을 두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그 배경과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고, 각국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¹⁶⁾. 영국의 경우는 자유 학교 형태의 섬머힐 학교와 하트랜드의 ‘작은 학교’가 대표적이고, 독일은 대안학교를 기존의 공적 제도인 학교 교육에 대해 일정 거리를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다른 교육적 구조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대안학교였으나 정규 학교로 받아들여진 경우이고, 정규 제도 안에 있으면서 대안적 성격을 기조로 하는 헨티히의 실험학교 등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대안 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형태와 성향을 지닌 자유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¹⁷⁾

국내의 경우 대안교육의 모색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7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 무렵부터 기존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비인간화,

16) 손원영, “주일교회학교의 대안학교와 가능성 탐색”, 『백석저널』 2호, (서울: 2002) p.77

17) 최호성 외, “대안학교의 제도화와 교육과정 정책 방향의 탐색”, 『2006년도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p.307

획일화, 경직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부 교육자들의 논단 수준에서 제기되었으며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외국 서적들이 소개되면서 공교육 제도 자체에 비판적인 의식이 싹텃기 때문이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의 욕구가 분출된 이른바 ‘민주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일은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기존의 교육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일부 교사들은 ‘교육 민주화’의 명분으로 교육 체계 운영과 교육현장의 변화 방향과 방안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여 제도교육의 개혁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야학이나 노동자 대학, 사회단체의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사회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대안교육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90년대 중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80년대 사회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부분적으로 그친 채 퇴조하고 급진적인 개혁 전망이 흐려지면서, 그리고 전교조운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제도교육의 구조적 변화가 좌절되면서 작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권으로의 체계화 노력을 기준으로 하여 대안교육의 흐름을 구분해 보면 1990년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종태는 민중교육운동, 빈민지역의 공부방운동, 학교 안에서의 대안적 교육이념 추구로 체계화 하였고, 1990년대 이후는 대안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교육을 제도화하기 시작 하였다.¹⁹⁾

좀 더 직접적인 교육적 이유를 찾는다면 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중고생들의 성적과 입시와 관련한 자살이 학교 교육 현장의 모순과 비인간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미래를

18) 이종태(2001), 전게서 p.14

19) 이병환(2004), 전게서 p.32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인간화 현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작은 모임이나 방학캠프와 같은 형태로 기존제도권 교육에 대한 대안적 실천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시도들은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내용과 방법이 정해진 과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초에 상호연대를 위한 모임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모임’을 갖게 되면서 대안교육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²⁰⁾

1995년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으나 바로 같은 시기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었다. 과거의 경직된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던 교육개혁은 대안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만나 대안교육 실천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에 반영하였다.

그것이 바로 교육부의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이다. 중도 탈락자 증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는 1996년 12월에 기존 학교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부적응 학생을 위한 소규모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대안학교란 이미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재적응 시키고 있던 영광의 영산성지고등학교를 모형으로 한 것으로서, 전국에 6개교를 시범적으로 설립·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의 발표로 한 때 대안학교의 의미가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잘못 각인되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

20) 엄재춘, “대안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학력인정 대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3~16

산되었다. 이 계획은 수정·보완되어 1997년 ‘고교설립준칙주의’와 199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인성교육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²¹⁾ 2006년 현재까지 21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개교한 상태이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인가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3) 대안학교의 유형

대안학교는 이념적 기초, 설립목적, 교육목적, 운영형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대안학교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첫째, 제도교육과의 관계²²⁾에 따라 ‘제도교육 안’, ‘제도교육 곁’, ‘제도교육 밖’이라는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교육 안’은 기존 학교제도 속에 있으면서 내용적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경우로 특성화학교가 여기에 속하며, ‘제도교육 곁’은 기존의 학교 교육을 그대로 둔 채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해 교육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들이 여기에 속한다. ‘제도교육 밖’은 정규 학교교육과는 무관하게 자유로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경우로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운영방식²³⁾에 따라 ‘정규학교형’, ‘계절 프로그램형’, ‘방과 후 프로그램형’, ‘아동·유아 프로그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학교형’은 정규학교로 인가된 학교와 상설학교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학교제도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절 프로그램형’은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한정된 시간에 실시되며, ‘방과 후 프로그램형’은 학교활동

21) 이풍길·김수옥, “특성화고교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33 No.2」, (한국농업교육학회, 2001) p.99

22) 김희동,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서울: 보리, 1997) p.117~129

23) 서울평화교육센터 엮음,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 p.17~30

이 끝난 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형태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부방을 들 수 있다. ‘아동·유아 프로그램형’은 아동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머니들의 자치운동의 형태나 공동육아 협동조합 등이 있다.

셋째, 핵심적인 교육이념²⁴⁾에 따라 ‘자유학교형’, ‘생태학교형’, ‘재적응형’, ‘고유이념 추구형’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자유학교형’ 대안학교는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가장 대표적으로써 아동에 대한 통제 억압형 교육 및 교사중심의 교육 형태에 대해 비판하고, 아이들의 선한 본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기초한 교육을 강조한다. ‘생태학교형’ 대안학교는 생태와 노작,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중시한다. 영국 하트랜드의 ‘작은 학교’가 대표적이다. ‘재적응형’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영광의 영산성지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유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는 매우 독특한 교육 이념과 방식을 가지고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이다. 이 학교는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한 슈타이너의 사상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일체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가 이 유형에 속한다.

4) 대안교육의 이념적 지향

위의 유형에서 보듯이, 대안교육은 그 구체적인 실천 양태가 다양함에도 지향하는 이념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대안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동관에서 나타난다. 아이들을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교사나

24) 이종태(2001), 전계서 p.119~122

25) 이종태(2001), 전계서 p.35~37

부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지닌 개체로 본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러한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것은 장차 이 사회를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아동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가치를 중시한다. 경쟁을 본질로 하는 기존의 원자적 개인주의 대신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존중 그리고 평등을 강조한다. 대안학교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다른 이를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갈등을 일으킬 때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체험을 하도록 한다.

셋째, 아이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학습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낳는다. 전통적인 교육과는 달리 대안교육은 주어진 교육내용이나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으며, 설사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본다.

넷째, 대안교육은 생명존중 사상 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인간과 자연의 적대적 또는 ‘나-그것’의 관계를 공존적인 관계로 회복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꾸고 활용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위기 극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도 동일한 가치의 범주로 본다.

다섯째, 대안교육은 노작 활동을 중시한다. 일과 놀이와 공부의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많은 대안학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자체 노동에 의해 조달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놀이이기도 하고 사회적 협동을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섯째, 대안교육은 공통적으로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소규모의 학교는 작은 집단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개의 대안 학교들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교육이 삶의 과정과 유리되지 않고 학생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학교가 학부모의 참여 속에 운영되기 위해서 당연하게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자의 이상적인 관계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이며, 지역사회는 학습의 무한정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2. 특성화고등학교

1) 특성화고등학교의 도입과 의의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 교육법상의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를 말한다. 1998년 3월에 공포된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와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특성화학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91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디자인, 요리, 농업,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영상 등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전문 직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

학교’는 학습자 중심, 생활중심, 인성중심, 자연친화 중심, 공동체중심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적 이념과 이상을 추구하는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다.²⁶⁾ 특성화학교는 원래 미국의 다양한 학교개혁 모형의 하나로 학교 단위별로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군을 넘어 학생 모집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한 ‘Magnet School’의 번역어로 쓰이던 용어인데 이는 정부가 애초에 직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구상하던 것이었지만 이제 이 개념에 인성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학교의 개념을 함께 담아 사용하게 되었다.²⁷⁾

이러한 특성화 학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첫째, 80년대 이후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운동의 영향이며 둘째, 1994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한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추진의 영향, 마지막으로 80~90년대를 지나며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의 학교 중도 탈락이 급증하고 청소년 범죄 행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996년 12월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학교모형을 다양화하여 학교 운영체제를 혁신함으로써 부적응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²⁸⁾.

하지만 정부 주도로 실시하고자 하던 방침은 그 과정이 대안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1997년 3월에 ‘대안학교 설립 운영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민간에 의한 설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1997년 6월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정원과 부지, 그리고 시설 기준 등을 크게 완화하여 소규모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교 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하여 이를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년 9월 23일 공포)에 반영하였다.

26) 이풍길·김수옥(2001), 전계서 p.102

27) 송순재,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과정 및 성격과 주요 문제점”, 「홀리스틱교육연구 Vol.9 No.2」,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05) p.39

28) 박익수,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분석”, (전북: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16~17

이로써 민간 차원의 학교 설립 부담을 줄이고, 공시된 기준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 명칭을 ‘특성화학교’로 정하여 이를 1998년 3월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²⁹⁾

특성화고등학교 제도의 도입은 국가 교육과정의 획일화된 형식과 내용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소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학교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2) 특성화고등학교의 현황

1998년 처음으로 간디고, 영산성지고, 한빛고, 원경고, 양업고, 경주화랑고 등 6개 대안학교가 정부 인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출발한 이래 2006년 현재는 <표-1>와 같이 전국에 21곳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 중이며, 대부분 한 학년에 20~40명, 1~2학년 정도로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원불교나 개신교 등의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설립되었고, 학교의 위치는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진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많은 학교가 기숙사제로 운영된다. 지역적 불편함에도 특성화고교에 대한 지원율이 매년 평균 입학 정원의 2~3배가 넘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수요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분포가 농촌지역 학생보다 도시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다는 점은 지역적 문제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는 학생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우학교나 경기대명고 같은 도시형 대안학교가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29) 이종태(2001), 전계서 p.176~179

<표-1> 특성화고등학교 현황³⁰⁾

(2006년 현재)

개교년도	학교명	소재지	교원 수	학생 수	재단 성격
1998	간디고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16	121	무교
	양업고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	16	105	천주교
	영산성지고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77	17	101	원불교
	원경고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	17	91	원불교
	경주화랑고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14	110	원불교
	한빛고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	17	156	개신교
1999	동명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18	17	117	개신교
	두레자연고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16	120	개신교
	세인고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18	140	개신교
	푸른꿈고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	10	70	무교
2000	산마을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22-3	9	46	개신교
2002	경기대명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22	18	104	공립
	지구촌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51	9	52	개신교

30) 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학교 현황 참조 · 재구성, (2006)

2003	공동체 비전고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75-1	10	65	개신교
	이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27	231	무교
	지리산고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	9	46	무교
	한마음고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장송리 418-1	14	83	무교
2004	달구벌고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75-5	15	94	개신교
2005	전인고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1리 923-1	8	32	무교
2006	팔렬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252	5	18	개신교
	한겨레고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9	17	무교

3)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또는 각각의 이념과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제도권 내로 들어 온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정규학교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제시하는 필수과목과 과목별 이수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른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최소 단위 수는 총216단위³¹⁾로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하나 국민공통기본교과(56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화교과를 포함하는 선택교과에 있어서는 학교 나름으로 자율성이 주어지기

31)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과목을 개발 편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학교마다 나름의 교육이념에 맞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악등반, 국토순례, 마음공부, 묵상과 같은 심신훈련이 있는가 하면 텃밭 가꾸기, 옷 만들기, 목공예, 동물 기르기 같은 노작 또는 체험 중심의 과목도 있고, 당구나 바둑, 배드민턴, 밴드 같은 일반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 과목에 해당하는 것들도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특성화교과 특징은 노작이나 체험중심, 또는 진로교육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 학생의 흥미를 존중하며 경쟁에서 자유로운 교육, 공동체성 중시 등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살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표-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요약³²⁾

구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택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총 이수단위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수단위	56	136		12	12	216
비고	필수과목	일반선택 심화선택	전문교과 (특성화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련, 교양의
선택과목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

하지만 보통교과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특성화교과를 현행 고등학교의 ‘단위제’에 맞게 편성해야 하는 문제와 학교별로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특성화교과를 개발하고 거기에 적합한 교사나 강사를 확보하는 일, 학교 시설과

32) www.yangeob.hs.kr 양업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공간을 충족시키는 일 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방과 후의 특별활동이 활발한 편이나, 학교 시설이 열악하거나 교사와 학생 수의 절대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다양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³³⁾ 또한 보통교과는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지만, 특성화 교과는 전적으로 단위 학교가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³⁴⁾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도 교과 성격이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무학년 무학급제 실시, 수준별 학습 또는 학년 통합 수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 평가방법은 일반교과의 경우 시험을 치르거나 수행평가, 논술, 구술 같은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교과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부터 일반 공교육 학교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평가하는 학교까지 차이가 많다.³⁵⁾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기존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학생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접목시킴으로써 학교 운영의 정형화된 틀을 깨고, 일반학교에 도전적인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특성화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국가의 제7차 교육과정의 틀을 준수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각 학교마다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기본 골격은 같다. <표-3>에서 보는

33) 이종태(2001), 전계서 p.182~183

34) 조금주, “간담회를 통해 본 대안학교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교육연구 Vol.10 No.2」, (한국교육연구소, 2004) p.3

35) 현병호(2005), 전계서 p.42~43

바는 같이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에 따라 10학년(고1)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기본교과 56단위, 재량활동 12단위, 특별활동 4단위, 총 72단위를 이수해야 하고, 이 중 음악과는 ‘음악’이라는 과목명으로 기본교과에 2단위를 배정받았다. 11, 12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과목 136단위, 특별활동 8단위, 총 144단위를 이수해야 하는데 음악과는 일반선택에 ‘음악과 생활’, 심화선택에 ‘음악이론’, ‘음악실기’로 각각 4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심화 선택 과목인 ‘음악이론’과 ‘음악실기’는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³⁶⁾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표-3>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과 시간 배정표

구 분	10학년(고1)	11, 12학년(고2,3)	
	국민공통기본교과	선택과목	
		일반선택	심화선택
교과 총 이수 단위	(56)*	(24)이상	(112)이하
교과	음악(2)	음악과 생활(4)	음악이론(4) 음악실기(4이상)
재량활동	(12)		
특별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숫자는 단위 수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 편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 과정인 1학년에 ‘음악’을 2단위로 편성하여 주당 1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예외적으로는 집중 이수 형태로 1학년 1학기에만 편성하여 주당 2시간씩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36) 예술에 관한 전문교과 :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전공 실기, 실내악, 합창·합주, 연주, 컴퓨터와 음악, 음악 감상

선택교과과정인 2~3학년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선택으로 ‘음악과 생활’을 선택하여 2학년에 편성하고 주당 2시간씩 총4단위를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음악과 생활’ 대신 ‘음악 실기’라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주당 3시간씩 총6단위 이수, 또는 2, 3학년에 걸쳐 주당 1시간씩 총4단위를 나누어 실시하는 등의 예외적인 운영도 있다.

심화선택의 경우는 음악이론, 음악실기 영역으로 예술전문교과 및 다양한 특성화 과목이 이 영역에 편성된다. 시간배분은 2, 3학년에 걸쳐 고루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컴퓨터 음악’, ‘음악실기’ ‘합창·합주’ 등 매우 다양하다. 심화선택 영역의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2·3학년 통합수업을 통해 학년 구분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재량활동은 교과재량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과재량은 총 12단위의 재량활동 중 4~6단위를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중 일부는 이러한 교과재량 영역에 심화 형태의 음악 시간을 배정하여 음악수업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율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특성화교과가 이에 속한다. 이는 많은 일반학교가 교과재량 영역에 국·영·수 등의 입시위주 주요과목을 편성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음악관련 특성화교과는 심화선택과 교과재량 영역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편성된 영역과 시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를 위한 선행연구

박상미³⁷⁾는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에서 입시위주의 학교현장에서 실제 음악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음악수업 실태를 파악하였고, 더 나은 음악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음악과목이 선택으로 되어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의 음악과목 개설여부를 확인한 결과 2학년은 62%, 3학년은 24% 개설되어 있었고, 3학년의 경우는 71%(5%는 미응답)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선택하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음악실은 모두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음악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내용은 가창과 감상이 전체의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는 피아노가 98%로 가장 많고, 그 외에는 국악기(장구 88%, 팽가리 78% 등)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국악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공은 성악이 40%로 가장 높았고, 국악이 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보다는 일반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평가에 있어서는 가창과 기악을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보통 가창이나 감상, 교과서 분석 등 음악수업의 단편만을 다루는 타 논문들과는 달리 음악수업 전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연구 결과의 바탕이 되는 설문지 회수율이 15%로 너무 낮은 것이 아쉽다.

37) 박상미,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1~67

Ⅲ. 대안학교 음악교육 현황과 실태조사

1.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다양한 대안학교 중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특성화학교 조항에 따라 인가받은 특성화고등학교 21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음악교육의 실태 파악을 위해 각 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설문에 응답한 13개 학교의 음악교사이다.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개의 특성화고등학교(1곳은 설문거부)의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연구를 참조하여 대안학교 음악교육 현황과 실태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부록>참조). 설문은 총 30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교사, 수업, 수업 외 음악교육 현황, 기타로 4가지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표-4> 설문조사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내용

하위영역	구성내용	선다형 문항 수	서술형 문항 수
교 사	- 인적사항 및 경력, 전공	5	1
수 업	- 학교시설 현황 - 수업운영 실태 -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 교사의 역할 - 평가방법 - 사이버 공간 활용도	16	

수업 외 음악교육 현황	- 학교에서 음악교과의 중요성 -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음악교육을 위한 교사수급 현황 - 교원연수 및 재교육 실태 - 음악관련 활동	4	2
기 타	- 대안학교 교사지원 동기와 보람		2
총 문항 수		25	5

조사 방법은 2006년 10월 둘째 주에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1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음악 교사의 연락처를 조사하여 10월 셋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전화와 E-mail을 통해 각 학교의 음악교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설문지를 거부한 1곳을 제외한 20개 모든 학교에 E-mail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한 20개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간디고등학교,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동체비전고등학교, 달구벌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 산마을고등학교, 세인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영산성지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지구촌고등학교, 한마음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의 음악교사 총 13명의 것으로 회수율은 65%이다. 답변 방법에 있어서는 각 항목마다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의 수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거나 설문에 응한 교사가 학교 실정에 따라 복수로 선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문항별 응답수의 합이 다를 수 있다. 각 문항의 응답 수는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2. 설문지 분석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 인적사항

대부분 대안학교의 음악교사는 1명이고 그 교사가 단독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각 학교의 음악교육 현황과 실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설문에 응한 13개 학교의 교사에 대한 대상 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 설문대상 분석

항 목	구 분	응답 수	백분율(%)
성 별	남	7	53.8%
	여	6	46.2%
연 령	20대	1	7.7%
	30대	7	53.8%
	40대	5	38.5%
음악 교사자격증	있음	12	92.3%
	없음	1	7.7%
임용형태	전임교사	9	69.2%
	시간강사	2	15.4%
	기간제교사	2	15.4%
공교육 교사경력	있음	10	76.9%
	없음	3	23.1%

대안학교 교사경력별	0~2년	3	23.1%
	2~4년	4	30.7%
	4~6년	2	15.4%
	6~8년	3	23.1%
	8년 이상	1	7.7%
전 공	음악교육	4	30.7%
	작곡	1	7.7%
	성악	2	15.4%
	기악	5	38.5%
	국악	0	0%
	기타(사회)	1	7.7%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교사의 남녀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고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교의 음악교사 중 음악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1명 있었는데 이는 타 교과인 사회학을 전공한 교사로서 사회과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사 수급 사정상 음악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 현재 음악교과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 교사의 70% 이상은 공교육, 즉 일반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대안학교에서의 교사 경험은 4년 이하가 교사의 절반으로 대안교육에서의 경력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대안학교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사 전공은 대학교 전공만을 정리한 것으로 국악전공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 작곡전공 1명, 성악전공 중 1명, 기악전공 중 2명 등 사실상 많은 교사들이 본인의 전공 외에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최종 학력으로 전공을 표시한다면 음악교육 전공이 총 8명으로 전체 중 2/3정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음악수업의 실제

(1) 학교시설 현황

음악은 일반교과와 달라서 교과의 특성상 제반시설이 필요한 과목이다. 수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다양한 것들 중에 매우 중요한 음악실 유무와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6> 음악실 유무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음악실 있음	12	92.3%
음악실 없음	1	7.7%

<표-6>의 내용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기본적으로 음악실을 보유하고 있어 음악수업을 위한 장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악기현황에 대해서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표-7).

첫째, 모든 학교에 건반악기인 피아노와 신디사이저가 있다. 피아노는 일반 학교에서도 음악수업의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유(98.3%)하고 있지만 MIDI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를 13개의 모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둘째, 대부분의 학교가 장구와 북, 쟁과리 등 국악기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인성교육의 하나로 민족과 전통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악기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 악기나 관악기, 각종 국악기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심도 있는 특성화교과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기타로는 알토-테너 색소폰, 유포니움(눅쇠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 바

리톤의 음역을 가지는 악기), 벨 플레이트(핸드벨의 일종), 키보드, 대금, 소금, 거문고 등의 악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7> 악기 보유 현황

순위	악기 명	보유학교 수	백분율(%)
1	피아노, 신디사이저	13	100%
2	장구, 북, 팽과리, 징	11	84.6%
3	기타(Guitar)	9	69.2%
4	단소	7	53.8%
5	리코더, 드럼set	6	46.2%
6	트럼펫	5	38.5%
7	오르간, 클라리넷, 플루트, 베이스기타	4	30.7%
8	바이올린, 가야금, 일렉트릭기타	3	23.1%
9	비올라, 첼로, 호른, 소고, 태평소, 트롬본	2	15.4%

(2) 수업운영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형태, 실제 수업에 사용되는 악기와 기자재 등 실제적인 수업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8> 수업 실시 장소

장 소	응답 수	백분율(%)
음 악 실	10	76.9%
일반교실	2	15.4%
야 외	0	0%
기 타	1	7.7%

<표-8>의 결과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어서 <표-6>의 음악실 보유현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실이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음악실에서 음악수업을 진행하고 음악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수업장소를 일반교실이라고 대답한 다른 한 곳은 음악실이 있음에도 일반교실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었다. 기타의 한 학교는 수업의 내용에 따라 장소가 바뀌는데 음악실과 야외에서의 수업 외에도 악기실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세 곳을 모두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음악교육은 실제적인 음을 들려주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악기의 필요성이 크다.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들 가운데 현재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악기의 사용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포함되며 수업의 내용에 따라 여러 악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악기 군으로 요약하면 건반악기의 활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국악기, 관악기, 현악기, 전자악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9> 악기 활용빈도

순 위	악기 군
1	건반악기(피아노, 신디사이저)
2	국악기(단소, 장구, 북, 팽과리, 징)
3	관악기(금관악기, 리코더)
4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기타)
5	그룹사운드악기(드럼, 베이스기타, 일렉트릭기타, 키보드)

다음으로 수업 시 사용되는 보조 기자재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제1순위는 컴퓨터·빔 프로젝트와 DVD(13)이다. 음악은 실제적인 음을 필요로 하는 수업이지만 ICT 활용 등의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이 음악에도 적용되

고 있고, 또한 컴퓨터나 영상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간접적으로 음악문화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DVD를 활용한 수업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7)가 두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카세트와 TV, 비디오(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견으로는 MP 3를 사용한다거나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실전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10> 기자재 활용 실태

활용빈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 DVD	13	100%
2	오디오	7	53.8%
3	이동 가능한 카세트, TV, 비디오	3	23.1%

수업진행방식에 대한 질문(표-11)에서는 음악의 특성과 체험학습을 지향하고 있는 대안교육의 특성상 실기위주의 수업형태가 가장 많은 것(12)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접근 보다는 직접 음악을 표현하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발표수업(9)으로 일반학교의 음악 수업에서는 드문 형태이다. 하지만 학생 스스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대안학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모둠별 협동학습(6)을 하는 학교도 많았는데 협동학습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공동체 속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익히게 하는 대안교육의 공동체 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프로젝트 수행(4)이나 주제토론(3)의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수업이라 매시간 행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또는 학기 중에 한두 번 정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것에 비해 활용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창조성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고자 대안학교의 목적에 맞게 정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의식 수업(3)은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활동이 수반되고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식으로만 계속 수업을 하기에는 그 의미가 과목과 맞지 않고 실기위주의 수업이 가장 많은 것도 영향이 크다. 현장 학습(1)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수업시간의 문제와 학교의 지역적, 재정적 제약 등의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전체적으로 너무 실기위주의 학습만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도 제기 되지만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안학교의 음악수업은 일반학교에서 발표나 조별 활동이 전체수업 비중에 4% 미만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매우 다양한 수업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 또는 수업 시수 부족을 이유 삼는 교사나 음악수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은 학생과 학부모 등의 문제 때문에 일반학교에서는 쉽게 시도되지 않는 모듈별 협동학습이나 발표수업, 주제토론 등을 대안학교에서 무리 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학교의 음악수업도 충분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보여 준다.

<표-11>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업형태

활용빈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실기위주의 학습	12	34.3%
2	발표수업	9	25.7%
3	모듈별 협동학습	6	17.1%
4	프로젝트 수행	4	30.7%
5	주제토론, 강의식	3	23.1%
6	현장학습	1	2.9%

(3)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교육내용은 그 학교의 교육목표나 분위기, 교사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대안학교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준수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 대안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세 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 실용·대중음악(9), 서양음악(8),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예술교과통합(7), 전통음악(6), 종교음악(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2>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교육내용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실용·대중음악	9	29%
2	서양음악	8	25.8%
3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예술교과통합	7	22.6%
4	전통음악(국악)	6	19.4%
5	종교음악	1	3.2%

특징적인 것은 중점을 둔 교육내용이 큰 편차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음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중 하나인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 시도하기 힘든 예술교과 통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창의성을 계발하고, 다분히 예술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들과의 연계성도 찾아 더욱 폭넓은 교육내용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지향은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을 편식하지 않게 하고 폭넓은 감각을 키우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국악음악도 중요한데 이는 21세기 세계화 물결 속에 한국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고,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다. 대안교육에서 민족과 전통을 중시하는 교육의 지향점도 이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음악의 경우는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의 수업내용으로써 학교의 설립목표와 교육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수업내용에 이어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영역은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영역은 크게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지고 활동에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이해영역을 이론으로 분류하고 활동에 포함된 네 가지 부분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13>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영역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모든 영역을 골고루	4	30.8%
	가창영역	4	30.8%
2	기악영역	2	15.4%
	감상영역	2	15.4%
3	이해영역(이론)	1	7.6%
4	창작영역	0	0%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에 관한 질문에서는 모든 영역에 골고루 중점을 둔다는 교사와 가창영역에 가장 중점을 둔다는 교사가 많았다. 일반학교의 경우는 약 40% 정도가 가창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업을 가창 약 50%,

감상 20%, 기악 15%, 이론 10%, 기타 5%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안학교에서는 어느 한 영역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모든 영역을 골고루 교육함으로써 음악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이 가창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는 대안학교에서 음악수업의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 학생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이다.

<표-14> 교육내용 선정 방법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됨	7	53.8%
2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됨	3	23.1%
	교사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음	3	23.1%
3	학생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음	0	0%

수업내용 선정 방법에 있어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의견이 교육내용 선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법까지 포함하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는 전체 76%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학교의 76%가 교사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고 학생 중심은 8.6% 정도에 머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로, 아동을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대안교육의 아동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교육내용 선정과 방법을 참고하여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

요한 것은 교재의 선택이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계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학교에서는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교육내용 선택에 자율성이 있는 대안학교에서는 검인정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행하고 있었다.

<표-15>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
1	직접 제작한 인쇄물을 수업시간마다 배포	4	30.7%
2	검인정교과서+ 직접 제작한 인쇄물을 수업시간마다 배포	3	23.1%
3	검인정 교과서	2	15.4%
4	많은 음악교과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한 교재	1	7.7%
	많은 음악교과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한 교재 + 직접 제작한 인쇄물을 수업시간마다 배포	1	7.7%
	검인정 교과서 + 많은 음악교과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한 교재	1	7.7%
기타	일부는 교과서 발췌하여 재구성, 일부는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 자체 교과서 제작	1	7.7%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는 직접 제작한 인쇄물로 수업시간마다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며 교과서나 교재 자체를 지정해 두지 않은 형태이다. 두 번째는 검인정 교과서와 인쇄물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검인정 교과서만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한 가지 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재구성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하여 매주 나눠주는 방식, 검인정 교과서를 참고하는 등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기타 의견

에는 일부는 교과서에서 발췌하고 나머지는 학교 학생들의 성향과 학습단계 등에 맞춘 내용을 구성하여 워크북을 제작하여 그 학교만의 특정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주제를 수업에 활용하여 획일적인 수업이 되는 것을 막고 매시간 더욱 다양한 수업 내용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수업을 할 때는 학생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재 외에도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거나 활동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음악수업에서는 그림악보를 통해 악곡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퍼즐, 주사위 놀이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켜 음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금의 노력이나 수고만 있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대안학교 음악교사는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구나 활동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인터넷(8), 스스로 창작(3), 교사용 지도서(2), 신문이나 서적 등 문서자료(1), 타 교과나 교사의 도움(1) 순으로 나타났다.

<표-16> 교구나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인터넷	8	53.3%
2	스스로 창작	3	20%
3	교사용 지도서	2	13.3%
4	신문이나 서적 등 문서자료	1	6.7%
	타 교과나 교사의 도움	1	6.7%

예상대로 인터넷의 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접근이 쉽고 빠르며, 세계 어느 곳이든 어떤 자료든 원하는 것은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편리함과 대부분의 학교가 다른 곳의 접근이 쉽지 않은 시골에 위치한 것도 인터넷 사용이 높은 한 가지 영향일 수 있다. 창의성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에

본을 삼아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구나 활동을 교사 스스로 창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위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는 교사도 있었다. 그 밖에 각종 공연, 전시, CD나 DVD 등 직·간접적인 문화 체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대답도 있었다.

모든 수업의 구성 조건들은 결국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목적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매우 중요하고 기초가 된다. 대안학교의 음악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지 알아보았다.

<표-17> 수업의 최종목적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자기표현과 창의력 계발	8	44.4%
2	음악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이해	4	22.2%
3	실생활의 실질적 활용	3	16.7%
	음악에 대한 흥미유발	3	16.7%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목적은 자기표현과 창의력 계발(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창의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기르고자 하는 음악과의 교육목적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이며, 음악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이해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는 수업내용 중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에 중점을 두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도 그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생활에서의 음악의 활용이나 음악에 대한 흥미유발도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음악의 교육목적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모든 목적은 음악수업이 단지 음악적 지식이나 실기능력 등을 키우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도구삼아 음악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

며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키우고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여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는 도우미 또는 안내자(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촉진자(4), 지식 전달자(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8> 교사의 역할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도우미 또는 안내자	10	66.7%
2	학습촉진자	4	26.6%
3	지식전달자	1	6.7%

대안학교의 대다수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어떤 내용을 계속 주입하거나 또는 결과까지도 모두 알려주어 학생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우며 격려하는 도우미나 안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안학교의 수업에 있어 그 중심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학생 스스로도 주체의식을 갖고 수업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참여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4) 평가

현재 입시위주의 공교육 실정은 모든 활동이 점수화 되어 평가로 직결되고 순위가 매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참 본질을 실현하고자 생겨난 대안학교에서의 평가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반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수행평가 형

식으로 가창이나 기악 등의 실기평가를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안학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대안학교의 음악수업에서도 실기평가(13)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밖에는 객관식 시험(10), 과제물과 모듬발표(6), 조사연구보고서와 포트폴리오(3), 프로젝트(2), 주관식 서술형 평가(1)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평가 방법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실기평가	13	37.1%
2	객관식 시험	10	28.6%
3	과제물/ 모듬발표	6	17.1%
4	조사보고연구서/ 포트폴리오	3	8.6%
5	프로젝트	2	5.7%
6	주관식 서술형 평가	1	2.9%

설문 답변 시 학생 평가 방법을 세 가지 선택하게 하여 순위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실기평가나 시험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어느 특정한 평가방법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업 주제와 진행 방식에 따라 그에 맞는 평가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5) 사이버 공간 활용도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각 학교와 집집마다 컴퓨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또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사이버 공간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다. 많은 학교들이 사이버 공간에 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교를 홍보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각 교과목에 대한 사이버 공간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음악교과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그런 이유로 대안학교에서의 음악교과 사이버 공간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

는지 알아보았다. 일단 학교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음악교과에 대한 정보자료실이나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표-20>과 같이 전부 6곳이다.

<표-20> 음악교과를 위한 사이버 공간 유무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사이버 공간 있음	6	46.2%
사이버 공간 없음	7	53.8%

사이버 공간이 있다고 답한 6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의 활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1> 사이버 공간 활용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수업내용과 상관없이 항시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음악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3	50%
수업에 관련된 자료나 공지사항, 학생들의 과제물 제출 공간 정도로만 사용한다.	2	33.3%
기타	1	16.7%

사이버 공간을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사용한다는 대답이 3곳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나머지 2곳은 수업에 관련된 내용과 학생들의 과제물 제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타는 사이버 공간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 생겨 아직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3) 수업 외 음악교육 현황

(1) 대안학교에서 음악교과의 중요성

일반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음악교과가 단지 실기과목 정도로만 인식되고 교과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안학교에서는 음악교과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음악교육은 전인교육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 된다(10)고 응답하였다.

<표-22> 대안학교에서 음악교과의 중요성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전인교육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 된다	10	76.9%
2	공교육에서 보다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2	15.4%
3	공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하나의 과목 정도이다	1	7.7%
4	공교육에서 보다 중요성이 낮게 여겨지고 있다	0	0%
	없어도 무방한 과목이다	0	0%

공교육에서 보다 중요성이 낮게 여겨지고 있다거나 없어도 무방한 과목이라는 응답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대안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지만 공교육보다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거나 공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하나의 과목 정도라는 응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대안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는 할 수 없다.

(2)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대안학교에서 음악교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교사들은 새롭고 다양한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 중압감(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문제(5), 지역적 제약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문화체험 기회 부족(4),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4),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4) 등으로 나타났다.

<표-23> 대안학교 음악교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순 위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1	새롭고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 중압감	6	26.1%
2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문제	5	21.7%
3	지역적 제약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문화체험 기회 부족	4	17.4%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4	17.4%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	4	17.4%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은 응답 수에 있어 어떤 것이 월등하기 보다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모든 면에서 대안학교의 음악교사로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설 및 악기 등의 기자재 부족과 짜인 틀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의 문제점, 대안학교 교사들과의 지적 교류-교과 연구 연수 등의 기타의견도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이 공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서 수반되는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고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기대 속에 새로운 교수방법의 요구는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혼자 교육과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교사는 연구의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안학교 교사들과의 지적 교류 및 교과 연구 연수 등의 기회가 많으면 서로의 교수방법과 교수·학습자료 등의 공유가 가능하여 발전적인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더욱 더 교사의 고민과 중압감은 커지게 된다.

재정 지원의 부족 때문에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고 그로 인해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음악교육의 경우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농촌 외딴 지역에 있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안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가 개방적이며 수평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교사와 학생 간 나이가 적어도 10년, 많게는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른다.

(3) 음악교육을 위한 교사수급 현황

대안학교들은 특성화 교과나 교과재량 및 특별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 관련 수업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내용에 맞는 전문교사가 필요하다. 각 학교에 특성화 교과나 교과재량 및 특별활동 지도를 위한 별도의 전문 강사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24> 음악관련 수업을 위한 전문 강사 유무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전문 강사가 있음	9	69.2
전문 강사가 없음	4	30.8

<표-2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전문 강사를 통해 특성화 교과나 교과재량 및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에 상주하는 교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되어 특별과목만을 위해 출강하는 강사들로 경우에 따라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 강사들이 있는 학교 중에서도 강사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표-25> 전문 강사 수

강사 수	응답 수	백분율(%)
10명	2	22.2%
5명	2	22.2%
4명	2	22.2%
3명	1	11.2%
1명	2	22.2%

강사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10명, 가장 적은 학교는 1명으로 전문 강사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학교마다 그 편차는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첫째, 대안학교들이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소규모 학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교사를 채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몇몇 학교들은 각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의 예술가를 초빙하거나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4) 음악관련 활동

전문 강사는 보통 음악관련 특성화교과나 교과재량, 동아리활동 등을 지도하는데 각 학교의 음악활동 내용은 다음의 <표-26>과 같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룹사운드나 밴드 부, 실용음악, 사물놀이 등 대부분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음악교사가 모든 학생을 다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가 필요한 것이다.

<표-26> 음악관련 활동

학 교	활동
간디고	우리 춤 우리가락, 합창합주, 음악의 이해, 피아노반주, 피아노배우기 / 짱프로젝트(합창), 꼬끼리다리(민중가요) 술피바람(풍물), 간락연(락 공연)
경기대명고	영상음악, 실용음악
공동체비전고	비전 합창단, 기악합주단
달구벌고	기악, 성악, 보컬, 밴드, 보컬트레이닝, 실용음악, 국악, 풍물, 사물놀이, 예배와 찬양 / 풍물반, CCM&D(찬양과 댄스) /학교 속 작은 학교 시스템 - 밴드학교
두레자연고	1인 1악기, 민요, 합창 / 음악 감상, 밴드, 찬양 팀, 사물놀이, 힙합 팀, 통기타 반
산마을고	풍물, 기타, 음악실습, 밴드부 / 사물놀이 , 그룹사운드, 실내악
세인고	특기적성, 합창, 기악합주 / 찬양단
양업고	피아노, 기타, 밴드, 성악 레슨
영산성지고	사물놀이, 밴드, 풍물 / 풍물동아리
원경고	관악합주, 합창, / 사물놀이, 보컬연주

지구촌고	밴드
한마음고	합창/ 밴드
한빛고	생활음악, 풍물, 음악이론 / 가야금병창, 단소, 플룻 / 주바라기(기독교음악 CCM밴드), 뮤즈(중창), 샘이 깊은 물(풍물), 랩교, 뮤턴트·비상구(락밴드), 필하모니(관현악), DNN(실용음악),

(5) 교원 연수 및 재교육 실태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운다. 어릴 때 한번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며,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각 교과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라도 참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대안학교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적용되는 요소이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대안학교의 음악교사 교원연수 및 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설문 에 응답한 13명의 음악교사 중 최근 5년간 교원연수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11명이 ‘예’, 2명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표-27> 최근 5년간 교원연수나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항 목	응답 수	백분율(%)
참여 O	11	84.6%
참여 X	2	15.4%

이는 일반학교 실태와도 비슷한데 일반학교 교사 85.5%는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15.5%는 연수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교사 중에는 공교육의 경력이 없고 대안교육 경력도 짧거나, 공교육·대안교육에서의 교사경력이 모두 짧은 사람도 있음을 감안할 때, 또한 일반학교와 비교해볼 때 보이는 결과만으로는 교원연수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는 배움의 과정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연구와 배움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는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대안학교 음악교사들이 최근 5년간 참여한 연수나 재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술형으로 프로그램의 주제를 함께 적도록 하였는데 설문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것은 1급 정교사 연수(3)였다. 그 외에는 음악치료연수, 슈타이너, 오이리트미, 댄스스포츠-인간 그리고 음악 & 몸, 관악기 체험교실 강좌, 국악체험교실 강좌, 재즈합창, 뮤직비디오제작, 전통음악 연수, 대학원 재학, 음악교수학습방법, ICT 활용 음악교육, 유리드믹스 등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었다. 교사마다 보통 한 두 개 이상씩의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대안학교의 교사가 된 계기와 음악교사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대안학교 교사가 된 계기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일단 대안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일반학교의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생들과 소통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고 답하였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첫째, 매순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작업이 보람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둘째는 목표 없이 방황하던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행복해 할 때, 셋째는 전혀 음악을 모르던 학생이 음악적인 관심과 재능, 표현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마지막으로 음악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과목이라고 학생들 스스로 강조하며 음악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애기와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보람을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부딪히며 느낀 생생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궁극적으로 음악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음악교사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3. 결과 요약

대안학교 음악수업의 실제와 수업 외 음악교육으로 크게 나누고 세부 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을 위한 제반시설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을 위해 다양한 악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악기들은 수업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며, 컴퓨터나 오디오 등의 기자재도 잘 갖추고 있어서 음악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생의 흥미와 수업참여도를 높인다.

둘째, 대안학교의 음악과 교육내용은 주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대중음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서양음악,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예술교과통합, 전통음악 등도 모두 큰 편차 없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셋째, 대안학교의 음악수업 형태는 주로 실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체험위주의 학습을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실기위주의 수업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제기 되기도 한다.

넷째, 수업 시 사용되는 교재는 어느 한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

업 내용에 따라 검인정 교과서와 직접 제작한 인쇄물을 함께 사용하는 등의 혼용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교구나 활동에 관한 자료 수집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안학교의 음악과 평가는 실기위주의 수업 형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실기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실기평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평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다각적인 학생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여섯째, 대안학교의 음악교사들은 교사의 역할을 도우미 또는 안내자로서 인식하고,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배움을 터득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한다.

일곱째, 대안학교의 음악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적은 자기표현과 창의력 계발, 음악을 통한 문화의 이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기능력이나 음악적 지식만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여덟째, 대안학교의 음악교과 사이버 공간은 아직까지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정도의 학교만이 사이버 학습공간을 가지고 있고 활동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아홉째, 대안학교에서의 음악교과는 전인교육을 위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다양한 내용의 음악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째, 대안학교의 음악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교원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기 개발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안학교 음악교사 간의 교과 연수나 정기적인 모임 등의 교류가 필요한데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대안학교만의 독특한

음악교과의 정보 공유와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음악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 중압감,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대안학교 중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현재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총 21곳의 특성화고등학교 중 설문조사를 거부한 1곳을 제외한 20곳의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음악교육의 실태를 조사·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음악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특징을 분석할 수 있었다.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교육의 특징이 음악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교육내용 선정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이 교사나 부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닌 독립된 인격을 지닌 개체로 보는 아동관을 실천하고, 토론이나 발표, 모둠별 협동학습 등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친다. 개인의 개성 존중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 과정은 교사의 주도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나 주도를 이끌어낸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등의 실기위주의 수업을 통하여 실제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대안교육의 특징을 살리며, 학교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한다.

둘째,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다양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학교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인 음악수업 외에는 별다른 음악관련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고, 11학년 이후로는 음악이 선택과목으로 11학년에 음악과목이 개

설된 학교는 전체 50% 정도이고 12학년의 경우는 24% 정도, 2·3학년에 미
개설된 학교도 20%정도가 된다. 개설되어있다 하더라도 주로 이론 강의식
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업도 음악실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거의 음악활동을 하지 않는데 반해 대안교육에서는 음
악교육이 전인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 교육과정의 편제도 11학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음악을 지
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성화교과나 특별활동, 동아리 등을 통한 많
은 음악관련 활동도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의 흥미를 끌어내는
내용들로 많이 꾸며지며 대부분 악기연주나 노래 등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학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내용의 선택
에 있어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을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의 음악을 골고
루 체험할 수 있게 하며, 많은 음악관련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의 체험
을 가능하게 한다. 프로젝트 수행이나 토론, 발표, 협동학습 등의 다양한 교
수·학습 방법을 음악수업에 사용함으로써 지루할 수 있는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기존의 일반 음악수업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넷째, 음악이 끝이 아닌 음악을 통한 변화를 꾀한다. 대안학교에서의 음악
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단지 음악만을 위한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음악을 배움으로 해서 그 음악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제7차 음악교육과정에 나타난 음악의 목적과도 다
를 것이 없는데 이는 일반학교보다 대안학교에서 그 뜻을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을 살펴본 바,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은 일반학교의 음
악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일반학교보다 경제적, 지역적으로 더 열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다.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는 그 특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을 일반학교에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안학교의 다양한 시도가 일반학교의 음악교육에 있어 대안적 모델로서 새롭고 도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음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질적인 성장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로는 질적인 접근을 통해 좀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수많은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비교 연구,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공교육 적용 가능성과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서울: 박영률, 2002년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음악」,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1999년
- 김희동,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서울: 보리, 1997년
- 서울평화교육센터,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년
- 아름다운학교본부 편, 「아름다운 학교가 대안입니다」,
서울: 도서출판 대안, 2005년
- 이선숙,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서울: 교육과학사, 2001년
- 이종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2001년
- 정유성, 「대안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년
- 정운경, 「발도르프 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4년
- 현병호, 「대안학교 길라잡이」, 서울: 민들레, 2005년

2. 학술논문

- 김송일, “대안학교에 대한 일고”,
「한독교육학연구 Vol.9 No.2」, 한독교육학회, 2004년
- 손원영, “주일교회학교의 대안학교와 가능성 탐색”,
「백석저널 2호」, 백석기독교학회, 2002년

송순재,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과정 및 성격과 주요 문제점”,
「홀리스틱교육연구 Vol.9 No.2」,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05년

이병환, “국내외 대안학교의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Vol.12 No.2」, 한국열린교육학회, 2004년

이선숙,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황과 과제”
「교육학논총 Vol.22 No.1」, 대경교육학회(구 우리교육학회), 2001년

이종태, “학교 교육의 위기와 원인, 그리고 대안의 모색”
「교육이론과 실천, Vol.11 No.1」,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년

이풍길, 김수옥, “특성화고교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33 No.2」,
한국농업교육학회, 2001년

조금주, “간담회를 통해 본 대안학교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교육연구 Vol.10 No.2」, 한국교육연구소, 2004년

조용태, 이선숙,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이념과 역사”
「교육학논총, Vol.21 No.1」, 대경교육학회(구 우리교육학회), 2000년

최손환, 김병주 “대안교육의 등장과 의미”
「지방교육경영 Vol.6 No.1」,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01년

최호성, 박창언, 김희용,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의 발전: 국제 비교, 간학문적
담론, 그리고 연구와 현장의 교류 : 주제지정 발표 분과 편 ;
교육과정 정책 : “ 대안학교의 제도화와 교육과정 정책 방향의 탐색”
「2006년도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년

3. 학위논문

- 박근이, “대안학교에서 미술과 교육 현황-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 박익수,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분석”,
전북: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년
- 박상미,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년
- 엄재춘, “대안학교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학력인정 대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년
- 최종진, “한국 대안교육의 비판적 고찰”,
충북: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 한석만, “대안학교 재개념화와 한국의 대안교육”,
충북: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4. 정기간행물 및 각종 보고서

- 강태중·이종태·이명준, “‘새 학교’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방안
탐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6-16, 1996년
- 교육인적자원부, “-대안교육도 정규학력으로 인정키로-”, 2003년
-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2006년
- 곽병선, “대안적 학교교육이란”,
「교육개발」 통권 94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 이춘화, “대안학교 교육만족도 분석”
「교육연구」 제18집, 충남: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4년
- 정유성·이종태,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 양성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개발 연구 보고서, 1999년

5. 인터넷 및 영상 자료

시민방송 <R TV> <http://www.rtv.or.kr>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1부-교육은 예술이다 (영국의 슈타이너 학교)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대안교육연대	http://www.psae.or.kr
간디고등학교	http://gandhischool.net
경기대명고등학교	http://www.daemyoung.hs.kr
경주화랑고등학교	http://hwarang.hs.kr
공동체비전고등학교	http://www.vision.hs.kr
달구벌고등학교	http://www.dalgus.net
동명고등학교	http://www.kdm.hs.kr
두레자연고등학교	http://www.doorae.hs.kr
산마을고등학교	http://www.sanmaeul.org
세인고등학교	http://www.seine.hs.kr
양업고등학교	http://www.yangeob.hs.kr
영산성지고등학교	http://www.yssj.hs.kr
원경고등학교	http://www.wonkyung.hs.kr
이우고등학교	http://www.2woo.net
전인고등학교	http://www.jeoninschool.net
지구촌고등학교	http://www.glovillhigh.org
지리산고등학교	http://www.jirisan.hs.kr
팔렬고등학교	http://www.kwhce.go.kr/pallyeolh
푸른꿈고등학교	http://www.purunkum.hs.kr
한겨레고등학교	http://han.hs.kr
한마음고등학교	http://www.hanmaeum.hs.kr
한빛고등학교	http://www.hanbitschool.net

ABSTRACT

A Study on Current Conditions of Music Education in Alternative Schools

-Focusing On Specialized High Schools-

Kim, Hyun Suk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of th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chools, specialized high school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its music education content, and to analyze its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the actual operation of lesson and music related activities. Specific subjects of study are music teachers from 13 school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among the 21 approved specialized high schools for alternative education, and a survey was used as the method of study.

Study results pertaining to the current conditions of music education in alternative schools are as follows.

First, each alternative school is comparatively well equipped with various equipments needed for music education.

Second, selected music and education content mainly reflect opinions of the students, and are us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nclude many different types of music.

Third, music lessons of alternative schools are mostly practice oriented and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education that aims for experience oriented education.

Fourth, as teaching materials used in lessons, mixed method of using an authorized textbooks and self produced material depending on the lesson content,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teaching tools and activities are most frequently being gathered via the internet.

Fifth, music evaluations of alternative schools are mainly through practical evaluations but by using various methods of evaluation in addition to practical evaluations, multilateral evaluation of students are being attempted.

Sixth, music teachers of alternative schools perceive their roles as helpers of guides and helps lead a student centered self directed learning.

Seventh, the ultimate purpose of alternative schools through music education was found to be development of self expression and creativity and cultural understanding.

Eighth, level of use of music curriculum cyber space of alternative schools is not high and is still insignificant from the aspect of activity.

Ninth, music education in alternative school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ubject for education of the whole man therefore various music activities are being conducted in each school.

Tenth, most of music teachers of alternative schools are engaged in self development through teachers' training or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of various contents.

Based on this study,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school music education is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education such as experience oriented learning, community value, and student centered learning are revealed in their music education.

Second, diverse music activities are being conducted.

Third, through various educational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have new experiences are provided.

Fourth, change is pursued through endless music.

Various attempts made by alternative schools can become alternative models for music education in general schools, and through it, music

education of alternative schools can present new and challenging direction to music education of ordinary schools and furth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부록〉 대안학교 음악교육의 현황과 실태 연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현재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음악교육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안학교 음악교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이니 선생님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번거롭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설문 문항 중에 적절한 답이 없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면 기타의견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분석 결과가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선생님께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연구자 김현숙 올림

※ 다음은 교서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성별 : 남() 여()
2.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 음악 교사자격증 : 있음() 없음()

4. 임용상태 : 전임교사() 시간강사() 기타()

5. 교직경력 : 공교육 ___년 ___개월, 대안교육 ___년 ___개월

6. 전공 : 음악교육() 작곡() 성악() 기악() 국악()
기타()

* 기악/국악/기타의 경우 세부전공을 적어주세요.

※ 다음은 수업 관련 질문입니다.

1. 음악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1.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①음악실 ②일반교실 ③야외 ④기타_____

2.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모두 선택

(번호-)

①피아노 ②신디사이저 ③오르간 ④바이올린 ⑤비올라

⑥첼로 ⑦플루트 ⑧클라리넷 ⑨트럼펫 ⑩호른

⑪리코더 ⑫소고 ⑬단소 ⑭장구 ⑮북

⑯뽕과리 ⑰징 ⑱태평소 ⑳가야금 ㉑guitar

㉒기타(악기이름-)

→ 2-1. 이 중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기는?

(활용빈도 높은 순서대로 세 가지 선택)

(, ,)

8.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 ①검인정 교과서
- ②많은 음악교과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한 교재
- ③교재를 사용하지 않음
- ④직접 제작한 인쇄물을 수업시간마다 배포
- ⑤기타_____

9.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나 활동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 ①인터넷
- ②교사용 지도서
- ③TV프로그램
- ④신문이나 서적 등 문서자료
- ⑤타 교과나 교사의 도움
- ⑥영화나 CF
- ⑦기타_____

10.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목적은?

- ①음악지식 습득
- ②실기능력 향상
- ③음악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이해
- ④창의력 계발
- ⑤실생활에서 실질적인 활용
- ⑥음악에 대한 흥미유발
- ⑦기타_____

11.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 ①지식 전달자
- ②자료 준비와 제공
- ③학습 촉진자
- ④도우미 또는 안내자
- ⑤관찰자
- ⑥평가자
- ⑦기타_____

12. 학생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을 세 가지 선택해주세요.(, ,)

- ①객관식 시험
- ②주관식 서술형 평가
- ③실기평가
- ④과제물
- ⑤모둠발표
- ⑥조사연구보고서
- ⑦포트폴리오
- ⑧관찰법
- ⑨프로젝트
- ⑩평가하지 않음
- ⑪기타_____

13. 학교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 음악교과를 위한 정보자료실이나 게시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3-1. ‘예’라고 답변하셨다면 자료실이나 게시판의 활용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①수업내용과 상관없이 항시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음악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 ②기재 정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 ③수업에 관련된 자료나 공지사항, 학생들의 과제물 제출 공간 정도로만 사용한다.
- ④학생은 사용할 수 없고 교사만 사용한다.
- ⑤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은 수업 외 음악교육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음악교과의 위치는?

- ①전인교육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된다.
- ②공교육에서 보다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 ③공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하나의 과목 정도이다.
- ④공교육에서 보다 중요성이 낮게 여겨지고 있다.
- ⑤없어도 무방한 과목이다.

2. 대안학교 음악교사로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서술도 가능)

- ①지역적 제약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문화체험 기회 부족
- ②새롭고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 중압감
- ③교수, 학습 자료의 부족
- ④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문제
- ⑤학생과의 공감대 형성
- ⑥기타_____

3. 특성화교과나 재량/특별활동 지도를 위한 다른 초빙강사가 있습니까?

(본인은 제외)

예(,__명) 아니오()

4. 최근 5년간 음악 관련 교원연수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예'라고 답변하셨다면 연수나 재교육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십시오.

()

5. 음악 수업 외에 음악 관련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성화/특별/재량/동아리활동 등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

6. 대안학교 교사가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

7.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음악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